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⑧

### 베트남 대표 보쥬기엔 “한국어 테스트 후에 비자 발급해 주세요” ‘비자 받으면 한국에 공장 세워 사업하고 싶다’

베트남 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서 3년 복무한 후 1997년도에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보쥬기엔(34·사진) 베트남 공동체 대표는 송우리문화센터에서 10여 명의 베트남 연수생에게 매주 토요일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한국어를 쓰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보쥬기엔은 포천시 가산면 H 산업에서 기계제작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조실부 모하여 2명의 형과 3명의 누이가 살고 있다고 한다.

보쥬기엔이 한국에서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사소통이 안된 점이라고 강조하며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한국이 좋은 점에 대해 송우리 문화센터에서 각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밝힌다.

베트남에서는 1개월 봉급이 1개월에 180만원의 봉급을 받아 140만원은 베트남으로 송금하고 40만원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점심식사는 공장에서 하고 잠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1개월 봉급이 8~10만원 정도라고 하니 한국에서의 생활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보쥬기엔은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자발급은 한국어시험을 치

러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비자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자가 없어 사업을 못하고 있다. 한국에 공장을 세워 베트남으로 물건을 보내고 싶다.

현재 포천에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가 1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보쥬기엔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들의 대개의 애로사항은 월급 안 올려주는 점, 월급 안 나오는 점에 대한 하소연이 가장 많다. 문제가 해결 안될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상담외국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포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보쥬기엔은 무엇보다도 외국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의료, 임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계획과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포천시 축제에 대해 보쥬기엔은 베트남 아오자이를 입고 노래도 부르고 베트남 음식까지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들의 30~40%는 불법체류자로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으로 보다 편안하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자 다들 모여 활짝 핀 웃음을 보여주는 이들이 좀더 자유롭게 한국에서 일할 만큼 대접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추천! 이야기 한마당

### 두 다리가 의사다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신바람 건강박사 황수관입니다. ‘두 다리가 의사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계시죠? 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못된 운동 부족 중에 걸리기 쉽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생계 수단이 바로 신체활동이었습니다.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넜습니다. 그분들은 운동 부족 중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병이 나도 약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몸을 혹사시켜서 골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운동 부족 중에 걸리셨습니다. 우리 몸을 도우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몸을 도우는 식보(食補)가 있고 약을 먹어서 몸을 도우는 약보(藥補)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여서 몸을 도우는 행보(行補)가 있습니다.

식보, 약보, 행보가 다 갖추어질 때 완전 건강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식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약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보는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몸이 허약해지고 골병에 걸려서 수명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식보, 먹을 것이 많습니다. 약보, 약이 너무 넘쳐 넘쳐흐릅니다. 그런데 행보가 부족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보, 식보도 중요하지만 행보가 더 중요합니다. 잘 먹고, 보조식품 잘 먹고 약을 잘 드시

면서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운동이 부족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조가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신체활동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엘리베이터, 세탁기 등등이 우리 신체활동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따로 인해서 우리 몸은 허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1950년대 영국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일찍 죽고 차장은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영국의 버스는 거의 2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전사는 가만히 앉아서 운전 만하고 차장은 2층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동이 되어서 오래오래 살게 되었고 운전사는 단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우체국의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일찍 단명을 하고 집배원이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집배원은 많이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 걸려다니는 집배원보다 성인병 발병률이 5배가 더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영구차입니다. 저도 영구차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래 타면 탈수록 내 몸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의사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압니까? 의사선생님이 병원에도 계시지만 진짜 의사선생님은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두 다리가 튼튼하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받아먹습니까? 배달합니까? 여러분 선택한 건강관리 잘 해서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문의 011-342-5834)

### \*용경자의 세상읽기 4



### 늦각이 문학수업

늦각이 대학생이라는 설레는 마음과 포천신문에 글을 쓰는데 보람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 4월5일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포천문예대학에 등록을 했다.

문학이라는 것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사치스런 학문이 아닐까도 생각했지만 그곳에 참여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다양한 연령과 각종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시간을 내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셨다.

그중에서도 멀리 연천에서 오신 주부님도 계시고 백발의 소녀할머니도 계시다. 배움에 대한 무한한 행복에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넘치고 광채가 나는 듯했다.

늦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어린 아들과,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기다려야 하지만 제일 기다려지는 것은 목요일 저녁이다. 평범한 주부인 내가 꿈과

열정을 가득 담고서 문예대학에 오신 고귀한 분들과 한 동지가 되어 공부한다는 것에 어깨 으쓱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벗어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애기한다는 것은 일상의 피곤함을 날려보내기에 충분했다.

3시간의 강의를 전혀 지루하지 않고 금방 지나가 버렸다. 만화도들의 열정이 이런 것일까? 중고등학교 시절 그토록 지루하고 졸기만 했던 수업 시간이 놓쳐버린 달콤한 꿀이 있음을 새삼 느껴보며 지나가 버린 시간의 아쉬움도 스쳐 지나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 가득, 머릿속 가득 채워지고 있는 문학이라는 것에 나도 흠뻑 빠져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늦게까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챙겨주는 신랑한테 아부라도 해야겠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이번 기회를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성금 기탁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100만원, 쌀 40kg

포천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이상식)는 4월20일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 100만원과 쌀 40kg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흥황기 포천남부 새마을금고 상무는 “지난 1998년부터 임직원들이 줄도리 모으기 운동을 실시해 매년 설날을 전후해 읍면동사무소에 지난해까지 전달해왔다”며 “올해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쌀과 성금은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불우이웃돕기 쌀 150포 전달

고향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쌀 20kg 150포대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9일 오후1시 소흘읍사무소에서 소흘읍인 고향인 권태경씨가 선배 김중현 포천시의회 의원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노인세대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권 씨는 쌀 20kg 150포대를 적십자를 통해 전달하여 함께 하는



훈훈한 정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고향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시인의窓

### 그늘진 곳

정기모(시인, 포천문인협회 회원)

바람 부는 겨울 거리  
전자상가 앞에서  
부부인 듯한 남녀가  
복을 두드린다

여자는 엉덩이를  
실룩이면서  
간혹 한 쪽 발을 들기도 한다

짧은 각시치마를 입은  
여자는  
얼굴에 울긋불긋 칠을 하고서  
노래에 맞추어  
장고를 때리고 있다

<감상노트>

어느 거리의 소금 절은 풍경을 바라보며 시인은 절망보다는 희망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다. 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의 미래와 의미를 배운다.

지금 거리에도 봄비는 있다. 어찌 한 폭비의 티끌조가 삶의 기력이 아니겠는가. 언제나처럼 삶에 대한 절긴 애착과 꿈이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웅매들도 두렵지 않을

올해는 제일 더운 해라고 합니다  
자 ---  
에어컨 150만원 하던 것이  
오늘은 단돈 75만원입니다

남자는 새끼손가락 크기의 엽을  
길가는 행인에게 나누어 주며  
오늘만 판다고 한다

버스를 타는 그늘진 곳에  
비닐로 천막을 친 자리  
그 안에서는  
할머니가 붕어빵을 굽고 있다

거다.  
메마른 거리에 빗물이 떨어져 햇살로 반짝할 때 금이 간 갈바닥도 매꾸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시장의 일상에서 가끔 인생의 심오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하는가 보다.  
안 익 수(시인)

안전운행은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 새마음 · 새출발로 안전운행을 약속하는 새포천고속관광(주)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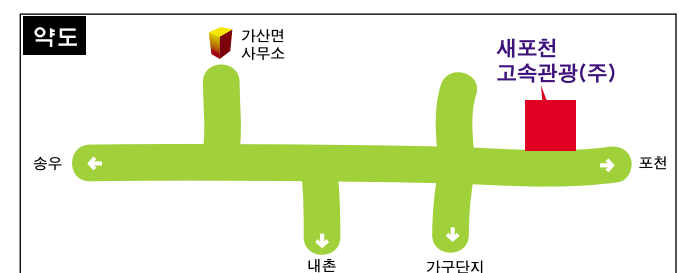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25인승 · 35인승 · 45인승

✓효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예약문의

031) 544-8888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